

김성남 시의원 대통령 표창 수상

남북화해 민주평통 위상 높인 공로로

12월11일 수원에서 개최된 2007 민주평통협의회 평가회의 및 의장 표창장 전수식에서 김성남 시의원은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성남 시의원은 제12기 자문위원으로 재임중 포천시위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력신장과 국민화합, 지역안정에 전력을 다해 온 점이 인정됐다.

또 공적내용으로는 시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아 대행기관인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와 의회간 원활한 교류 역할을 맡은 물론 민주평통 사업의 원활한 협조와 예산지원에 전력을 다해 민주평통 위상을 크게 높였다.

김 시의원은 또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동남고등학교와 대동남장학회를 결성해 등기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후계통일세대 육성에도 공한한 점이 인정됐다.

아울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농업경영인 포천시 연합회장으로서 영농기술의 혁신으로 농가 소득 증대할 공로로 국력신장 유공자로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성남 시의원은 그동안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포천시 후원회장으로 당선된 후 결손가정은 물론 독거노인들에게 사랑과 반찬지원, 후원회원들과 함께 노인을 팔다리 주물러드리기, 말벗동무되기 등으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



12월11일 수원에서 개최된 2007 민주평통협의회 평가회의 및 의장표창장 전수식에서 김성남 시의원은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성남 시의원은 포천시 4·H연합 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행정도너우터원장과 한농련 포천시연합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포천시후원회장과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어느 병장의 편지

머칠 전 나는, 지금 생각해도 빙그레 웃음짓게 만드는 기분 좋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병장 000 12월 신문값이요. 아주머니! 저 마지막 달 신문 값이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월 9일까지 넣어주시면 감사히 볼게요." 새벽 신문 배달하는 중에 위병소 보조병을 통해 전달받은 이 편지는 깨알같은 작은 글씨로 노란 메모지에 적어서 신문 대금위에 붙여져 있었다. 보조병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신문을 보던 병장이 이제 곧 전역을 한다는 것이었다. 군부대에 신문 배달할 때마다 만나는 군부대 보조병들과 인사

를 하다가 신문구독을 하겠다고 하여 선불로 받기로 하고 몇 달 동안 신문을 넣어주었다. 그러던 중 그 신문을 구독하던 병장이 전역을 하면서 신문을 거절하는 편지를 쓴 것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분 좋게 하니 그 병장은 참으로 살아서 방법을 아는 친구란 생각이 든다. "그 군인 참 귀여운데..." 외삼촌이 들켜 딸이 이 편지를 보고 내 말이다. 자식같은 그 병장의 편지는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한번은 한 구독자로부터, "우리 집은 개가 유식해서 사람보다

먼저 신문을 읽는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웃으며 개가 물어뜯지 않도록 신경써서 신문을 배달할 적이 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어쩌면 그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더 절실한, 살아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부장

태안 원유유출사고에 발벗고 나서

포천시 공무원과 민간단체 330여명 자원봉사 실시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 포천시 공무원 및 민간단체가 복구지원에 나섰다. 포천시는 13일 공무원과 통리반장, 환경단체,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와 함께 총 110명을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푸지포항으로 급파했다. 이날 시 자원봉사단은 자체적으로 방재복, 장화, 장갑 등 방재장비를 준비해 오전 9시부터 현장 복구 작업에 들어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안가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유착포를 던져 걷어 올리는

등의 작업을 통해 피해복구를 도왔다. 복구에 땀을 흘린 한 자원봉사자는 "뉴스에서만 보다 직접 와서 보니 처참한 광경에 마음이 아팠다"면서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손길이 모여 큰 힘이 되서 하루빨리 예전의 아름다웠던 서해안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17일까지 총 3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태안으로 보내 사고 현장에 들어가 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 포천시 공무원 및 민간단체가 복구지원에 나섰다.

포천시, 레인보우 가족 페스티벌 개최

자원봉사자 결혼이민자 가정 등 150여명 참석



포천시는 지난 12월 포천 여성회관에서 레인보우 패밀리 자원봉사단과 결혼이민자 가정, 일반 신성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인보우 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1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관 3층 청성홀에서 레인보우패밀리 자원봉사단과 결혼이민자 가정, 일반 신성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인보우 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은 레인보우 가족들의 신체, 정서적 교류를 통한 구성원들의 단합과 건강한 관계 형성 증진을 위해 개최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안전문화유공 소방방재청장상 수상

이명순 주부명예기자단 소홀음 지부장

주부명예기자단 이명순(49·사진) 소홀음지부장이 평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문화확산에 헌신노력하고 안전문화운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전관리현장 선포 3

주년을 맞아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월3일 포천시 월례조회에서 표창장을 받은 이명순 지부장은 포천시 시민안전봉사대의 대원으로 2005년부터 재년에방대



이명순 지부장은 포천시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6년 7월 30일부터 31일

까지 포천시 영종면 양문리 사은교 다리 밑 영평천에서 익사사고 발생시 3일 동안 반낮을 가리지 않고 수색 작업 실시로 참봉사의 큰 면모를 과시, 대원은 물론 유가족에게 식사, 차, 침구류 등을 제공해 진심으로 위로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지부장은 2006년 8월부터 포천시 주부명예기자단 소홀음지부장으로 현재까지 활동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명성’은 이름을 떨치는 것, ‘인성’은 타고 나는 것이다

적선(積善)의 결과요 타고나는 것이다. 반면 명성은 성품(性品)이요 노력(努力)의 결과요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명성에 거품이 깨면 인품(人品)은 가려지고 만다. '거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명성은 권위주의(權威主義)와 같은 것이다. 권위가 현재(現在)의 것이라면 권위주의는 과거(過去)의 것이다. 명성도 마찬가지이다. 명성은 '현재의 것'이 아니다. 명성은 '과거의 것'이다. 누가 어필하는 소리를 듣고 좇아가면 이미 그것은 지금이 아니다. 지나간 일이다. 명성을 듣는 순간 어느 또 다른 명성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명성은 스타와 같은 것이다. 반짝이 다 사라지는 스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명성에 '거품'이 끼는 것을 조심하고 하는 것이다. 명성을 지향(指向)하되 거기에 안주(安住)해서는 안 된다. 명성은 권위주의(權威主義)와 같은 것이다. 권위가 현재(現在)의 것이라면 권위주의는 과거(過去)의 것이다. 명성도 마찬가지이다. 명성은 '현재의 것'이 아니다. 명성은 '과거의 것'이다. 누가 어필하는 소리를 듣고 좇아가면 이미 그것은 지금이 아니다. 지나간 일이다. 명성을 듣는 순간 어느 또 다른 명성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명성은 스타와 같은 것이다. 반짝이 다 사라지는 스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명성에 '거품'이 끼는 것을 조심하고 하는 것이다. 명성을 지향(指向)하되 거기에 안주(安住)해서는 안 된다.

는 이야기는 눈을 찢고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일에 집착(執着)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성에 연연(戀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명성 그 자체는 좋은 것이다. 어느 분야에 유명(有名)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흐트러진 일이다. 그렇다고 그 명성에 만족하고 그 명성에 도취(陶醉)해버리면 안 된다. 그 명성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 순간 그 명성에 거품이 일고 그 순간 그 명성에 아집(我執)과 독선(獨善)이 흐르기 때문이다. 명성은 명성으로 끝나야 한다. 그 명성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 명성으로 세상(世上)을 보려고 하지는 안 된다. 세상은 정지(停止)된 것이 아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을 관조(觀照)할 줄 알아야 한다. 비결(秘訣)은 간단하다. 참여자(參與者)의 입장이 아니라 관찰자(觀察者)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거품을 걷어내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 명

성에 안주해 그 명성만 따라가다 보면 거품이 치일 수 있다. 거품이라는 잘못된 잣대로 세상을 보게 될 때 문이다.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에 연연(戀戀)하지 말고 현재를 보라. 세상을 바라볼 때 역사(歷史)를 거울삼아 현재를 보라.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옛날의 금슬이 이야기만 해서 안 된다. 현재(現在)가 중요하고 미래(未來)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過去)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과거의 사실을 거울삼아 현재를 직시(直視)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거품이 실상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가. 거품은 실상(實像)이 아니다. 거품은 허상(虛像)이다. 허상이기 때문에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 명성을 조심하고 그 명성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거품이 명성(名聲)을 가리지 않도록 인성(人性)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



이규연 한국영재학회 회장

읍장님과의 대화

읍장실에 들어서자 꽃향기가 그득했다. 오래된 지인이 소홀음을 자나던 길에 놓고 갔다는 소담한 꽃바구니는 소홀음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연상시켰다. 공식석상에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서 반듯하고 딱 떨어지는 듯 한 느낌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내내 여유와 정겨움도 있는 분이였다. 9월12자로 소홀음의 경영자로 부임한 윤석희 읍장님은 소홀음의 경영 방향에 대해 먼저 읍민들의 어려운 부분과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최우선 업무이며 읍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아 움직이는 소홀음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소홀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모리문화거리'와 '가구단지'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예로 들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인 교통난 해소로 단기, 중·장기 계획을 포천시 교통행정과 협의의 중에 있으며 이미 구체적인 방안으로 송우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에서 인수해 민간에 위탁

해 경영하는 안, 43번 국도변 복지완충지역중 일부를 교통지역으로 전환 운영권, 송우초 운동장 지하주차장 안 등을 제시했다. 주민복지부문에선 기초 생활수급자와 버금가는 차상위 주민에 대한 대책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여건과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노인을 위한 생활 활력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등 주민 복지시설에 상당한 계획과 함께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내년 개원되는 주민 자치 센터에서 충분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민의 숙원인 시립도서관은 설계 공모가 끝나 내년 완공시작 계획이며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어 역시 내년부터 운영되고 소홀음생활체육관 또한 내년 8월 완공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송모루 문화회관은 지상 2층으로 개관되어 소홀음의 여러 가지 행사로 그 쓰임이 쉽고 다양해져 명실공히 읍민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소홀음은 포천시 전체 인구의 30%를 갖고 있고 시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는 포천시 발전의 중심에서

주거나 교육, 경제 기능을 선도해 나갈 대단히 중요한 포천시의 관문이라는 점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읍직원 모두가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했다고 한다. 끝으로 읍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웃끼리 사랑하고 모든 면에 긍정적인 생각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함께 한다면 우리 소홀음은 더욱 빠르고 눈부시게 발전 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홀음 송우2리 미동부락에서 태어나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고향에서 받은 혜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소홀음과 포천시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 것이라는 읍장님의 얼굴은 굳은 의지가 보였다. 민원실 문을 나서며 지역에 대한 사랑 자긍심 열정으로 가득 찬 읍장님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기호 주부명예기자단부장

소홀노인대학 졸업식

엇그제 입학식 취재를 했는데 벌써 졸업이라니 흐르는 세월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삼삼오오 오시는 노인대학 졸업생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다. 유치원 졸업도 못했는데 대학 졸업이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랑 겸 대견함으로 말씀하신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앞으로는 노인대학 졸업생들이 지금 인원보다 몇 배나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친구며 동료들이 스쳐간다. 나도 건강하

게 여기 계신 졸업생처럼 살아가자. 오늘 졸업식은 시장까지 오셔서 축사를 멋지게 해주시고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개근상 정근상 봉사상 등 우리 초등학교 졸업식이 잠시 떠올랐다. 특히 소홀농협 조합장님께서서는 부상으로 내복을 사오셔서 노인들을 위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회장님께서 노인대학 경영목표는 '존경받는 노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인 역할 바로 익히기라는 말씀으로 축하

겸 졸업생들을 격려하시며 교육을 통해서만이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고 교육이 없는 인생은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남은 여성 후배 자식으로부터 칭송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읍장님께서도 송모루 회관을 2층으로 올려서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셨다.



강옥자 주부명예기자단부장